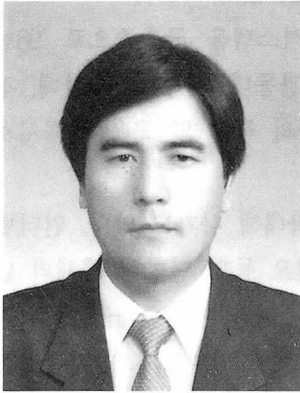


## 교육 정보화의 물결



박 해 수

미원정보기술(주) 대표이사

현대는 첨단 정보화시대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매스미디어,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의 새로운 개념의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요구와 맞물려 그 해답을 원격교육에서 찾고자 하는 다양한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일부 교육기관이나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원격교육에 관심을 갖고 시도하고 있어 교육에도 빠르게 파급되고 있는 정보화 물결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원격교육에 국내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무엇보다 교육의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으로

대변되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있다.

원격교육은 그 정의에 있어서 먼대면(face-to-face)교육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교육방법과 미디어를 자칭한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전송양식이 통합된 다시 말하면 문자, 도형, 음성, 그래픽, 동화상이 하나로 합체된 통합미디어의 개념이다. 즉 한곳에 집합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업무현장 또는 가정에서 멀티미디어 기능(TEXT, 동화상, 음성, 대화기능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기존의 집합교육의 문제점인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와 교육비용 상승, 업무 로스타임 발생 등을 해결함은 물론 장시간의 교육수료기간과 자율학습 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통신교육의 문제점까지도 해결해 주고 있다.

따라서 원격교육은 간접교육비용 절감, 학사관리 용이, 학습효율 상승, 학습기간 및 공간 자유선택 등 열린교육 구현이 현실로 가능하게 된다. 또 모든 내용을 학습할 필요없이 알고 싶은 사항만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조작하기 때문에 매우 능동적이다. 즉 원격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참여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열린 학습교육 시스템이다.

원격교육의 한 분야인 위성원격교육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등 위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위성을 원격교육에 이용하여 왔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포드사에서는 위성을 이용하여 사원들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정규학교에서 위성으로 원격교육을 하고 있다.

---

또한 일본에서도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은 물론 사설입시 학원에서도 위성을 이용하여 원격강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6년부터 무궁화위성을 이용하여 위성원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학원 및 보험사 같은 대기업에서도 위성원격강의를 시행하고 있다.

정보화지원 원격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에서 위성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중으로 '98년 신학기가 되면 한국지역대학연합 소속대학 8개 대학(경남대, 계명대, 관동대, 아주대, 울산대, 전주대, 한남대, 호남대)에 위성원격교육시스템 구축이 완료, 대학 상호간의 학습 및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원격교육의 시도는 급속하게 그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교육과의 접목을 통해 위성, 텔레비전, 케이블 TV, 라디오 등의 단방향 매체의 단점을 극복, 양방향의 화상교육과 같은 실시간 강의는 물론 자율학습을 위한 Self-running 원격교육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해져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버츄얼한 사이버 세계의 등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을 고려한다면 현실 세계를 전자적인 형태로 재현, 물리적인 교육기관을 대신하는 인터넷 가상교육기관의 등장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앞으로의 교육은 점차 폐쇄교육으로부터 열린교육으로 전통적인 강의환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학습이 가능한 가상공간으로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일정기간의 교육체제로부터 평생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 뿐만 아니라 농어촌, 산간, 도서벽지의 교육지원과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교포,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북한동포의 한민족 교육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한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시장개방은 통신시장과 교육시장에도 커다란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의 통신업체와 교육기관들이 국내 상륙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1세기 정보통신시대와 교육개방을 대비하여 교육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체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교육부, 정보통신부)에서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무궁화위성방송통신사업,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을 통해 교육 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지원과 제도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는 교육의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력향상과 교육 정보화를 사업화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